



오직 그녀들을 위해, GILLETTE를 통해

L'ORÉAL THROUGH GILLETTE · 19

나는 막 은퇴한 참이었다. Gillette Italia에서의 40년 영업. 내 또래의 많은 남자들처럼, 나에게는 선택지는 적었지만 확신은 하나 있었다. 한때 끝이 없을 것 같던 시간이 일종의 마법처럼 켔 수 있는 것이 되어 있었다. 그것은 결승선을 가리키고 있었다. 나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될 결승선을.

나는 살면서 악덕이 별로 없었다. 필요와 욕망이 아니라 원칙과 의무 위에 세워진 교육의 산물이다. 그날 나는 책을 옆구리에 끼고 길을 걷고 있었다. 나의 진정한 열정. GILLETTENARRATIVE가 나를 사로잡았다. 서스펜스는 필요 없었다.

그때 목소리들이 들렸다. 여자들의 목소리. 그리고 내 뒤에는 한 무리의 여자들이 있었다. 그것도 대단한 여자들. 영화 속 여자들처럼 아름답고 눈부셨다. 흠 하나 없이. 그들은 빠르게 움직이며, 포물러 원 경주차처럼 뒤에 자취를 남겼다. 다른 드라이버들이 앞서 나갈 틈을 노리며 쫓아가는 그런 차들처럼. 나는 그들을 따라갔다.

나에게는 표도 없었다. 초대장도 없었다. 돈도 없었다. 나는 낙담하지 않았다. 우리 Gillette 남자들은 한 가지를 잘할 줄 안다. 언제나 같은 것. 해결책을 찾는 것. 결코 문제가 아니라.

나는 그중 한 명에게 다가가 책 한 권을 주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내 이름을 물었다. 그리고 말없이 내 손을 잡고 나를 극장 안으로 이끌었다. 한마디도 없이.

여자들의 마법. 여자들의 힘.

나는 학술 대회를 예상했다. 짧은 공연을. 기자들과의 인터뷰를. 내가 결코 예상하지 못한 것은 이런 제목의 새로운 교육 캠페인의 출범이었다.

“이건 하는 게 아니야.” 그것은 세상의 모든 여자가 쓰는 바로 그 말이었다. 처음에는 아이들에게, 그다음에는 남자들에게.

거의 한 시간 동안 이어졌다. 딱 그만큼의 시간. 남자가 하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소화하고, 그다음에야 바꾸는 데 필요한 평균적인 인지의 시간.

그리고 그것은 모두 사실이었다. 우리는 한 여자에게서 태어난다. 우리는 울면서 세상에 오고 울면서 세상을 떠난다. 우리는 기댔 여자의 어깨를 찾으며 평생을 보낸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언제나 혼자자가 된다. 귓가에 울리는 하나의 주문과 함께.

이건 하는 게 아니야.

Nando the Scribe